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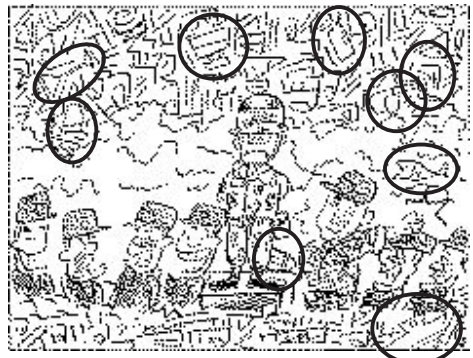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88 >



찾아(보)세(요) 못, 열대어, 나비, 비늘, 셔플룩, 제비, 송사리, 동양연필, 칫솔

받아봐야 알지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얌전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물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간호사는 다시 한 번 물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환자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냥 나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자 환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거야 받아봐야 알지"



지난주 정답

셔플룩, 갈매기, 물고기, 다리미, 펜촉, 양주전자, 아이스크림, 담배피프, 열대어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권수정 (안도근 완도읍) 김철현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동화속 슬픈 주인공' 다이애나 사망

10년전인 1997년 8월 31일 새벽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은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이애나는 이날 새벽 0시경 파리시내 알마 광장 인근 지하 차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날 사고는 다이애나와 동승했던 이집트 출신 백만장자 연인 도디 알 파예드, 운전사, 경호원 등 일행이 탄 메르세데스 벤츠 600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탄 프리랜서 사진사 '파파라치'를 피해 고속으로 질주하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운전사와 알 파예드는 현장에서 숨졌고 경호원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이애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만에 숨졌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는 경악하며 애도했다. 영국 국민들은 '영국은 왕관의 보석을 잃었다'며 슬퍼했고 1997년 9월 6일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백만명의 애도 인파가 몰렸다.

또 유명인들을 찾아다니는 프리랜서 사진사인 '파파라치(Paparazzi)'들의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보도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엘튼 존이 부른 추모곡 '캔들 인 더 윈드(Candle in the Wind·바람 속의 촛불)'는 음반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이애나 스펀서는 지난 1981년 7월29일 런던 성마로로 대성당에서 찰스 영국 왕태자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금발의 스무살 미모의 여성이라는 것,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유치원 보모에서 왕위 계승권자의 아내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왕세자비의 처)'가 됐다는 점 등으로 그녀의



영국 왕실 기장이 덮여진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의 관이 웨스트 민스트 사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

등장은 세인의 관심을 끌며 모으기에 충분했다.

특히 수줍은 미소를 트레이드 마크로 우아함과 뛰어난 패션 감각을 갖추고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전 세계는 열광했다. 다이애나를 추종하는 '다이애나마니아(Dianamania)'가 생겨났다.

화려한 이목을 받았지만 이면에는 불행의 그림자도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엄격한 왕실 생활이 숨이 막힌 그녀에게 무척 딱한 남편은 첫사랑과의 불륜을 저지르며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남편과의 불화는 5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결국 1996년 8월 정신이 혼란했다.

이혼한 뒤에든 그녀는 젊은 나이에 요절할 때까지 불우한 어린이와 환자들을 위한 자선 사업을 계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79. '코리아 마린보이'로 불리는 이 선수가 최근 열린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가능성을 한층 높여줬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위로 끝낸 자유형 장거리의 '10년 황제'인 호주의 그랜트 헛켓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태환 ②조오련 ③김연아 ④한규철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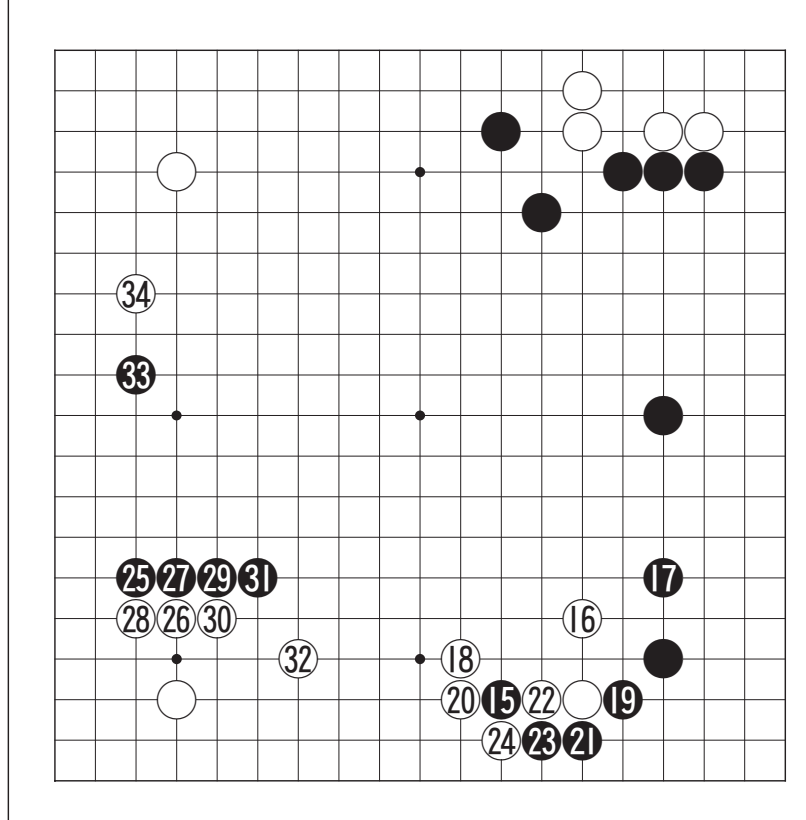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29일 (음 7월 17일 乙未)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August 29th. Signs include Rabbit, Snake, Horse, Goat, Monkey, Dog, Pig, Rat, Ox, Tiger, Dragon, Snake.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준결승 1국 김영수 5단의 변화구 2보(15~34)
白 이창준 5단 (주승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고사회)
흑 15로 협공한 것이 우변을 키우는 일관된 작전으로 3연성포석에서 흔히 나오는 수법이다. 이 수의 의도는 '참고도1'처럼 3삼에 들어오라는 것. 그러면 8까지 우변을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프로들의 실전에서 많이 두어진 정석으로 백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의 주문을 따르는 것이 싫은지 이창준 5단은 백 16로 뛰어나가 변화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백 18로 누른 것은 예정된 코스인데 여기에서 김영수 5단은 또 19로 붙이는 변화구를 던진다. 이 수로 달리 둔다면 '참고도2'의 8까지가 정석인데 이것은 백 24가 흑의 앞을 막고 있고 우변의 흑 세력이 자연히 약화되므로 19로 둔 것이다. 이런 백 24까지는 정석이며 34까지는 서로 무난한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구리 9단, 한·중전원전 첫승
제11회 한·중전원전에서 중국 랭킹 1위 구리 9단이 1승을 먼저 챙겼다. 구리 9단은 27일 중국 강소성에서 열린 조한승 9단과의 제1국에서 조 9단을 185수만에 백불계승을 거두고 타이틀에 한 발 앞섰다. 최근 중국 천원전 5연패를 달성한 구리 9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 9단은 지난해 말 국내 천원전에서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 10회 대회에서는 고근태 6단이 우승, 제2국은 오노 29일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1만 달러, 준우승자에게는 5천 달러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80> 오하오우 니혼고 <980> 니하오 쑹구위 <170> 한자 이야기 <597>

What do you want on your cheeseburger? 치즈버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A: What would you like?
B: One cheeseburger and an orange juice, please.
A: What do you want on your cheeseburger?
B: I'll have ketchup and onions.
A: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orange juice?
B: Large, please.
A: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B: 치즈버거 하나하고,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A: 치즈버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B: 케첩하고 양파를 넣어 주세요.
A: 오렌지 주스는 큰 것 아니면 작은 것으로 드릴까요?
B: 큰 것으로요.
\* relish : 조미료
\* mustard : 겨자
\* 저는 싸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 I want to take them out.
\* 햄버거에 무엇을 넣어 드릴까요? = Would you like anything on the hamburgers?

何か不公平(ふこうへい)ですね。 뭔가 불공평하군요
A: 大卒者(だいそつしゃ)就職難(しゅうしょくなん)深刻(しんこく)な問題(もんだい)ですね。
B: 來年の卒業生(そつぎょうせい)は一學期(がく)から會社訪問(かいしゃたつもん)しよう(しよう)しながら走(はし)り回(まわ)っていますよ。
A: でも、聞(き)いたところによると、ある會社(かいしゃ)では有名な大學(だいがく)で青田川(あおたがわ)をやってるらしいですよ。
B: そうですか。何か不公平(ふこうへい)ですね。
A: 대졸자 취직난이 심각한 문제군요.
B: 내년 졸업생은 1학기부터 회사 방문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A: 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회사에서는 유명한 대학에서 조기취업(인턴사원)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B: 그렇습니까. 뭔가 불공평하군요.
走(はし)り回(まわ)る: 뛰어다니다, 돌아다니다
聞(き)いたところによると: 들은 바에 의하면
何(なに)か: 뭔가

想租房嗎? 집 세 들려고요?
A: 你好! 想租房嗎?
Nǐhǎo! xiǎng zūfáng ma?
니하오! 세방 원하오?
B: 是的, 想租办公司.
Shìde, xiǎng zū bàn gōngsī.
네, 사무실 세울려고요.
A: 要租多大的?
Yào zū duō dà de?
원하오 얼마의?
B: 三四百平米吧.
Sānsì bǎi píngmǐ ba.
삼백사십평 정도요.
A: 多少钱呀? 집 세 들려고요?
B: 네, 사무실을 세울려고요.
A: 얼마냐 큰 금액이요?
B: 3,4백 원 정도요.
租房 [zūfáng] 세 빌다
平米 [píngmǐ] 평방미터

破廉恥(파렴치)
깨어질 파, 청렴할 려, 부끄러울 치
파렴치(破廉恥)는 엄지가 깨어져 없다는 뜻으로 '몰엄치(沒廉恥)'와 같은 말이다. 엄지(廉恥)는 청렴(清廉)하고 수치(羞恥)를 아는 마음이다. 따라서 '파렴치하다'고 하면 엄지가 없어 잘못을 범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형용한다. 비슷한 말에 '얼굴 가죽이 두껍다'는 의미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있다.
엄지(廉恥)는 전통사회에서는 보통 '예의엄치(禮義廉恥)'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자(管子)'의 목민편(牧民篇)에서는 나라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덕목(德目)으로 사유(四維) 즉 예의엄치를 거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게 되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그 나라는 파멸하게 된다고 했다.
'예의엄치'에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덕목인 효제(孝悌忠信)를 덧붙이면 팔덕(八德)이 된다. 이 팔덕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도덕률이기에 때문에, 중국에서는 팔덕을 망각(妄擧)한 사람은 '망팔(忘八)'이라고 하여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